

# 율곡의時弊論과 건강한 사회

宋在雲  
〈동국대 교수〉

## 1. 율곡의 그 시대진단

### (1) 權姦의 濁亂과 정치부패

율곡 이이(栗谷 李珣)는 1536년 중종 31년에 태어나 1584년 선조 17년, 49세를 일기로 조선조 중엽을 살다간 철학자요, 정치가이다. 그는 명종3년 13세로 진사 초시에 합격한 이래 대사헌, 예문관 직제학·대제학, 이조·형조·병조판서, 우참찬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그 시대의 병폐를 날카롭게 지적, 일대 갱장을 주장한 개혁주의의 철인정치가였다.

기묘·을사 양 사회를 거치면서 도학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던 당시 사류들은 기운을 잃었고, 여기에 동서분당의 다툼이 다시 일어나 정국은 혼미를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제도의 문란과 권문세가의 농민에 대한 각종 수탈, 보역(保役·병역), 공물, 진상, 방납 등의 폐해는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뒤튼 들어 놓았다.

1562년(명종 17년) 황해도 일대를 횡행하여 군읍을 소란케 했던 임격정(林巨正)사건은 무엇보다도 이때 농촌 사회의 빈궁과 인심의 악화를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사회지도층의 부패상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였다. 율곡의 시대는 이러하였다.

율곡은 당시의 정치적 부패상에 대해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한 바 있다.

권간(權姦)이 탁란(濁亂)한 후로부터 상하가 오직 뇌물로 일을 삼아 관작도 회퇴(賄賂)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고 소송도 뇌물이 아니면 결말이 나지 않고, 죄수도 그것이 아니면 면하지 못한다. 吏胥는 문서에 의하여 농간을 부리며 백물을 납공할 즈음에 정하고 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많고 적은 것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뇌물로 그 등급을 매겨 取하고 버림을 선택하니, ... 이것이 진실로 정사를 어지럽게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고질인 것이다.

관료사회에 있어서의 뇌물 횡행을 두고 말한 것이다. 뇌물이 아니고는 되는 일이 없는 관료사회의 이러한 병폐는 결국 국가의 기강을 헤이하게 하여 법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곤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연산조 이래의 이와 같은 국가 기강의 해이를 율곡은 「중쇠(中衰)」로 진단하고 있다.

### (2) 중세기의 쇠퇴

율곡은 조선 중기를 태조 이성계의 창업, 세종의 수성, 세조의 계승에 이은 「중세기의 쇠퇴」라고 파악하여 자기 시대인 선조기야말로 「인시이제의(因時而制宜)」 즉 때에 맞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자고로 건국의 역사가 증엽에 이르면 반드시 안일에 빠져 점점 쇠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2백여 년을 전하여 지금 벌써 중쇠기에 들었으니 이제야말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아조(我朝)가 입국한지 거의 2백년에 달하여 중쇠기가 되었는데 앞서 권관들의 탁란한 정치영향이 심하여 오늘날에는 마치 원기가 다하여 떨치지 못하고 있다. 속론에 구애치 않고 三代로서 기약하여 실학과 실천에 힘써 일신으로서 일세의 표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의 말은 선조 14년 을곡 46세 되는 해 7월, 대사헌의 신분으로 경연에 입시하여 선조에게 아뢴 말이고, 뒤의 것은 같은 해 10월, 天變으로 인하여 왕의 부름을 받고 다른 신하들과 같이 입시 하였을 때, 호조판서로서 진언한 것이다. 을곡의 진단은 이렇다.

태조이래 2백여 년간 나라가 외침으로부터는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 평화는 조야를 막론하고 나태와 안일을 가져왔다. 국가적 긴장이 없었던 까닭에 권력자들은 정쟁을 일삼았고, 상하 인민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그 결과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유민이 속출하였으며, 바다나 육지를 막론하고 국경은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바야흐로 건국 이래의 쇠퇴기요 또한 위기가 아닌가? 이제 시대는 변법강장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주상은 이와 같은 국가적 상황을 통찰해야 한다.

을곡의 時弊論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진단에서 나오는 개혁론이다. 그가 지닌 국가적 위기의식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혁사상은 「조선중기의 쇠퇴 상황」이라고 하는 특출한 안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을곡이 「중쇠」라고 진단하였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오늘의 한국사회 상황은 여건의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통점을 간과해 버릴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을곡의 시폐론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고전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도 이

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시폐론

### (1) 낡은 제도와 부조리

시폐란 한 시대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폐단과 폐해를 뜻한다. 그러나 을곡이 말하고 있는 시폐는 이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그가 말하는 시폐란, 첫째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뜻하고, 이 낡은 제도에서 오는 온갖 부작용을 총칭하는 것이다.

국가제도의 잘못과 사회적 부조리를 통틀어 종합한 개념이 시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을곡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여하가 시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도 밝히고 있다. 왕조시대에 있어서 절대군주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되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을곡의 과감한 진언은 오늘날 날에도 지도자의 자질과 관계하여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을곡 자신이 시폐나 혹은 시폐를 뜻하는 말을 직접 써서 왕에게 진언한 것은 간원진시소(諫院陣時疎)·진해서민폐소(陣海西民弊疎)·진시폐소(陣時弊疎) 등이 있으나, 많은 소(疎), 책(策), 계(啓) 등은 물론 만언봉사(萬言封事), 聖學輯要 등도 모두 시폐를 논하고 국가 경영의 대도를 개진했던 점에서 을곡의 정치사상과 사회개혁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진시폐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하여 시폐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국가소망의 네 가지 요인

을곡은 시폐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 □ 世汚於循俗

잘못된 구습에 더럽혀진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아마도 연산조 이래의 사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흉흉한 인심을 뜻하는 말인 것 같다.

을곡의 말에 따르면 예의와 염치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기심이 팽배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을 용납치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마음 놓고 악을 범하면서도 후회하는 빛이 없는 것이 풍속이 되었으며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에만 정신을 팔고 있어서 정의는 무시되고 백성들은 본받을 게 없게 되었다. 이처럼 인륜이 지켜지지 않고 일이 법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국가 쇠망의 제1요인이다.

울곡의 원문을 그 뜻을 살려 간추린 것이다. 그릇된 구습에 세상이 오염되었다는 것, 그것은 인륜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륜의 붕괴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울곡은 시폐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다.

### ② 績敗於食志

관직을 생활의 방편으로만 생각하여 쌓이는 폐단이다.

울곡의 말에 따르면, 관리들이 재물에만 눈이 어둡고, 조정은 조정대로 사람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을 위해서 관직을 설치하니 부패와 관의 기강 해이가 말이 아니다. 이러한 풍토속에서는 관직에 충성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미관말직에 있는 관리가 간교와 모함을 부려 충실한 관료를 내쫓는 일이 허다하다.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에 뜻이 없으며, 간혹 직책에 충실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단지 문서나 작성하고 그때그때 회의에나 참석할 뿐이다. 이것이 국가 쇠망의 제2의요인이다.

당시 관료들은 시폐를 직시했다.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국가의 공무에는 관심이 없는것, 그리고 조정의 위인설관이 공직의 기강을 흐리고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③ 政亂於浮議

중구난방의 구구한 의견과 뜬 소문들이 국치(國治)의 정론을 확립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울곡의 말에 따르면 국정을 결정함에 있어 그 의견이 잡다하여 조석으로 개정하고 있으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 있지 않아 상하대소가 혼란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천이면 그 의견도 천으로 갈라져 통일되지 못하고 불화 한다. 뜬 의견이나 소문은 그것이 나타난 근원을 알수 없다. 미약하게 시작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데까지 자라나 백성을 사로 잡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는다. 유언비어 같은 浮議는 태산보다 더 위압적이고 칼날보다 날카롭다. 부의가 떠돌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직을 잃게 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명예를 잃는다. 정치의 소재가 부의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이 국가 쇠망의 제3의

요인이다.

정쟁이 심하던 당시에 유언비어성의 뜬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가? 여기에는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주견이나 정견이 없음을 한탄하는 의미도 들어 있다. 사람마다 제각기의 의견을 하나의 국론으로 수렴, 통일하지 못하는 당시 의정의 난맥상이 시폐로서 잘 지적되고 있다.

### ④ 民窮於積弊

여기서 말하는 적폐는 잘못된 구습이나 관례 그리고 악법을 뜻한다.

울곡의 말에 따르면 좋은 법도 변통이 없으면 국민이 살아가는데 궁핍하여지기 마련인데 우리의 경우는 여러 해 동안 권신과 간신들의 손에 의해 폐단이 많은 법을 만들고도 그 잘못을 개정하지 않은 관계로 그 폐단이 커질대로 커진 나머지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독이 매우 크다. 기강이 없어진 지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기강을 다시 수립하여 사회를 개혁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구와 농경지는 줄었어도 세금과 곡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늘었으니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 유민이 속출한다. 이와 같이 누적된 폐단은 국가 쇠망의 제4의 요인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백성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유리하도록 많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악법을 알고서도 개정하지 않는 조정의 처사가 국가 쇠망의 길을 재촉하고 공물의 과도한 징수와 이속들의 가렴주구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유민이 속출하는 시폐를 지적한다.

진시페소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시폐'가 국가 쇠망의 요인이라고 진단하여 선조로 하여금 일대 개혁의 단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소는 울곡 47세때인 1582년 9월에 올린 것으로 49세되던 해, 1월에 울곡이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보면 그가 사망하기 꼭 1년 반 전에 행해진 것이다.

선조대의 중쇠기를 극복하기 위한 울곡의 이런 염원은 그 원문 속에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선조는 이를 수용하여 개혁을 단행할 과단성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제4항 '민공의 적폐'는 그가 34세 때 지은 동호 문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1) 일족절인(一族切人) (2) 진상변중(進上煩重)
- (3) 공물방납(貢物防納) (4) 역사불균(役事不均)
- (5) 이서주구(史胥誅求)가 그것이다.

일족절인은 일종의 연좌제로서 군역이나 납세를 미필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일족이나 이웃이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 바, 이로 인한 농촌사회의 피폐는 말할 수 없었다. 진상변중은 왕실에 대한 선물이나 제수를 민호로부터 거두어 바치는 것으로 이 과납의 피해가 백성들을 잔상(殘傷)시켰으며, 공물방납제는 토산현물세를 이속들이 대납하고 백성들한테서는 그 몇 배를 거두어 사복을 채우는 폐단을 조장했고, 역사불균은 군역, 즉 병역의 부정이며, 이속주구는 하급관리들의 뇌물, 착취 등의 갖은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3. 오늘의 사회상과 울곡의 시대

#### (1) 법대로 살면 손해인 시대

건강한 사회라고 할때, 건강이라는 말은 실상의학적 개념이다. 병리적 현상이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조선 중기의 사회를 진단하고 그 개혁을 주장했던 울곡의 시폐론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의 모색을 양립시킬 때, 우리는 자연히 울곡의 시폐와 그 개혁사상에서 병리적 현상과 건강성을 찾아 봐야할 것이다. 울곡의 시폐론에서 본다면, 그 시대는 확실히 건강성을 잃었다. 앞으로 말하겠지만 울곡의 대안은 그 잃어버린 건강성을 회복하기위한 하나의 처방이었다. 울곡의 진단과 처방이 과연 오늘날 우리사회에 얼마나 유효한 것일까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울곡이 살았던 시대를 능가하는 積弊의 시대다. 부정과 부패, 나태와 안일의 총체적 부조리를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한국병」이라고 진단했다. 도대체 사회 구석구석이 썩지 않은 곳이 없다.

권력층과 관료집단은 가진자 계층과 불의하게 결탁,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먹이사슬을 형성했으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기주의의 아성을 쌓고, 그 이기주의가 가족이나 자기 집단에 연결되는 것이라면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자행하여 왔

다. 부패와 비리는 먹이사슬과 이기주의를 통해, 특히 권력층과 지도층에서 성행했고, 그 결과는 上濁下濁의 원리에 따라 온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변졌던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떠한지 좋다는 나쁜 본보기를 남겼다. 집권과정에서의 부도덕한 수단이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 억지 논리를 통용시켰고, 그 결과는 국민저항과 사회도덕성의 마비라는 이율배반적 양극현상을 초래하였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의 정당성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회풍조를 야기시킨 것이다.

<대흥기획>이라는 데서 얼마전 오늘날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성공의 척도는 돈」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응답한 숫자가 각각 72%와 74%에 달한다. 어떻게 살아야하나? 잘모르겠지만, 법대로 사는 것은 손해다. 성공의 척도는? 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요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83%)' 고도 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돈이 성공의 척도라는 데서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데서 정의를 잃은 부정부패주의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럽다는 데서 가치관의 혼돈을 파악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이와 같은 솔직한 대답은, 그들이 아직은 사회의 실천적 경험자가 아니고 보고 들은 바에 의한 나름대로의 가치의식이란 점에서 이것은 기성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정치권력의 파행과 부정부패주의, 경제건설이란 구호에 고무되었던 인습적 물질만능주의,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도록 사회적 지표를 잃게 했다.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의를 우리는 지금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울곡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지금 世汚와 政亂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 (2) 울곡시대와의 비교

울곡은 자기의 시대를 「중쇠」의 관점에서 세오와 적폐, 정란과 민궁으로 파악하였다. 세오는 예의와 염치가 사라진 세국인심을 뜻하며, 이것은 오랜 인

습의 굴레(循俗)를 벗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적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국가기강의 해이로서, 이것은 국정을 돌보는 사람들이 재물만 탐하는(食志)데서 기인한다. 정란은 정치가 국론을 정함이 없이 어지럽기만 한 것으로서, 이것은 중구난방의 부위(浮議)에 기인한다. 민공은 백성의 살기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되고 오래된 제도와 법(積弊)을 고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울곡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국가 사회적 병리현상과 그 원인은 울곡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근본적 차원에서 그다지 다르지 않다. 시대가 앓고 있는 병과 그 병의 원인에 대하여 울곡이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 시대의 병이 조선중기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뜻도 되겠다.

인습적 습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예의 염치 없음이 같고, 국민적 합의의 미성숙으로 인한 정치의 어지러움이 다르지 않으며, 민공으로 표현되었던 경제사정의 순조롭지 못함이 질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사정은 같다. 특히 뇌물이 성행하는 관료사회의 풍토나 국가의 공복들이 재물을 탐하고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된 현실은 울곡시대의 방불이 아니라 울곡시대를 능가할 정도가 아닌가?

울곡은 구체적 대안으로서 (1) 도학정치의 계승 (2) 파벌을 초월한 인재 등용 (3) 공안(貢案)의 절감 (4) 관리의 감원 (5) 지방감사(地方監司)의 구임(久任)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할 시페론의 근본책은 이 보다는 포괄적인 것이다.

시페의 광정을 위한 울곡의 개혁안은 보다 고차원적인 정치적 처방, 즉 지도자의 자질과 정책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울곡 개혁주의의 지표

##### (1) 지도자의 철학

###### ① 哲人王

울곡은 진시페소에서 국가최고지도자인 人君은 자기철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확립해야 할 철학은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이다. 유가의 이

상인 수기치인에서, 수기의 덕목으로 격물치지, 성의정심의 철학은 治者의 인격적 자질에 속하는 것이다. 울곡에 의하면 격물치지가 아니고서는 지혜가 이치에 밝지 못하고, 성의정심이 아니면 마음이 이치를 따르지 못한다. 울곡은 “전하께서 즉위한지 16년이 되었는데도 정치는 발전이 없이 위태롭고 쇠하여 가는 양상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으니 혹시 전하께서 격물치지 성의정심하는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고 선조에게 직언한다.

정치가 어지러운 것은 왕자신이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 울곡의 지론이다. 왕 이전에 먼저 哲人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격물치지는 知에, 성의정심은 무엇인가 행할 마음의 자세에 속하는 문제다. 울곡은 최고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애지와 더불어 성의정심의 마음자세를 무엇보다도 중히 여겼다. 이와 같이 왕은 철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상소는 그가 일관지한 것이다.

###### ② 立志와 治亂

울곡은 말한다.

인군의 뜻은 치란과 관계가 깊다(人君之志, 治亂之所係也). 뜻이 인의에 있으면 요순이 되고…… 뜻이 사욕에 충만하면 결주가 된다.

군주의 입주에 대하여 한 말이다. 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이나 혼란, 그리고 흥망성쇠는 오로지 최고지도자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일인 군주시대에 있어서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겠지만, 중의정치시대인 오늘에 있어서도 최고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가 국가 사회의 흥망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國本과 民本

울곡은 말한다.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식(食)을 하늘로 삼는 것이다.……임금이 다만 백성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민들은 임금을 사랑하고 받드는 마음이 없게 된다. 임금보기를 사람이나 호랑이 원수같이 여길 것이다.……경계할 줄 모르다가 일조에 뜻밖의 변이 일어나고 환이 생겨 소홀이 여기던 필부필부(匹夫匹婦)가 강적이 된 뒤에 비록 후회한다 하더라

도 이 때는 미칠 수 없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임을 설파한 것이다. 국왕이 곧 국가라는 봉건사회의 국가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아야 한다는 민본주의를 더욱 철저화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왕으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군왕 자신의 덕에 있다고 가정, 만일 덕이 없을 경우 백성의 발란에 의해 이 정통성이 붕괴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백성의 혁명에 의한 군왕의 추방도 가능함을 암시하였다. 당시의 정치체제에선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 (2) 時宜와 變法

율곡은 만언봉사에서 「대저 시의라는 것은 때에 따라 법을 만들어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대개 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시대가 변하면 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진언한다.

율곡의 이와 같은 맥락의 변법론의 동호문답, 진시폐소, 경연 등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는 바로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이나, 경국대전(經國大典)도 모두 시대에 적합한 법이었음을 강조하고, 특히 연산군 이래의 여러 잘못된 법의 개혁을 강력 주장했던 것이다.

율곡은 또 변법은 일을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조종의 법도를 변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는 시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에는 실지의 일을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정치를 하면서 시의를 알지 못하고 일에 당하여 실공을 힘쓰지 않는다면 비록 성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치효(治效)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시의를 알고 시세를 파악하여 법을 개정하는것, 이것이 갱장이다. 율곡의 폐법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은 진시폐소에서 갱장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설사 갱장을 하고 나라가 망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은 갱장을 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나 그 결과는 같을 뿐이라는 충간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다.

### (3) 기강을 세움

율곡은 말한다.

기강이란것은 국가의 원기이다. 기강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퇴폐되고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몸의 모든 뼈인 백해(百骸)가 해이해진다.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정치의 요체로 보고 있다. 율곡에 따르면 국가 정사가 일에 공정을 기하고 간사함을 제거하며 상벌을 분명히 하고 사업의 시행과 조처가 천리와 인심에 합당할 때 기강은 확립된다는 것이다.

## 5. 살아 있는 율곡의 목소리

우리는 앞서 율곡의 시폐론을 살펴보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진단하여 보았다. 그리고 율곡시대의 사회적 병폐와 오늘 우리 사회의 그것이 매우 유사하다는데 놀라운 동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율곡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왕권체제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사회는 소위 민주정이며 경제적 기반은 공업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폐가 공통성을 지닌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정치의 문제이고 제도와 운용의 결함때문일 것이다. 특히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와 뇌물의 횡행은 지금이 질·양적으로 더욱 성하지만 그 유전 인자는 이미 율곡이 간파했던 조선시대의 정치적 파행과 국가기강의 문란속에 잉태되어 있었던게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역시 전통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율곡의 개혁주의사상은 아직도 유효하다.

율곡은 시의(時宜)의 개념을 정립하고 변법 개혁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요점을 말한다면 정치적 부패일소와 과감한 제도의 개선이다. 율곡은 이 명제, 즉 부패일소와 제도의 개선을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이나 혼란, 흥망성쇠를 최고지도자의 뜻 세움(立志)에서 찾았고, 왕은 철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피력했다. 최고지도자가 철학이 없을 때 그 뜻이 전전할리 없고, 국가 사회를 이끌 지혜와 지도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고금의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국왕이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의 모범으로 정치를

행할 때, 백성의 인심은 순화되어 잘못된 구습에서 탈피, 예의와 염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혁신이요 개혁이다.

그리고 율곡은 國本을 백성에서 찾았다. 백성의 안정이 국가의 안정을 가져오고, 국가의 안정이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음으로서 이다.

율곡은 국가의 기강을 사람의 원기에 비유하였다. 기강의 해이와 문란은 원기를 잃어 사회를 쇠락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란 이 원기를 회복한 사회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총체적 부정부패에 불탄 사회이다.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의식, 돈이 성공이라는 물질만능주의는 공직사회를 뇌물과 비리사회로 만들었고,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혼돈을 야기시켰다.

율곡의 말을 원용해 본다면, 구제하기 어려운 시폐 속에 빠져 있는 사회가 아닐수 없다. 현 정부는 한 손엔 사정이란 채찍을, 또 한 손엔 경제회생이란 당근을 들고 이 시폐를 척결해 보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근본적 치유책, 다시 말해 건강한 사회건설의 원대하고도 구체적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율곡이 말하는 시의에 따른 변법 개혁의 사상은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아닐수 없다.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입지는 지도력의 확립을 위해서, 시의 변법과 기강확립은 원기가 충만한 사회 건설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율곡의 정신이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살아 있음을 우리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 발견할 수 있음은 한편 불행이고 한편 다행이다. ♣

## ■ 석유용어 ■

### 나프타 (Naphtha)

나프타는 휘발유와 비슷한 기름으로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가 된다.

원유를 380~400°C로 가열하여 증류하면 그 끓는점에 따라 여러가지 석유제품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30~180°C 부근에서溜出되는 輕質溜分을 나프타라 부른다. 나프타는 끓는점 범위에 따라 경질나프타와 중질나프타로 구분한다.

나프타의 용도는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은 휘발유, 제트油 등의 제조基材로 쓰이며, 이밖에 여러가지 석유제품의 끓는점 조절을 위해 연료속에 섞어 사용한다. 원료용은 주로 석유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며, 일부가 암모니아비료용 및 용제용원료로 사용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생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농업용 필름, 인쇄잉크, 합성고무, 합성수지, 염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 벙커C유 (Bunker-C oil)

B-C유는 석유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溜出되는데 그收率은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B-C유는 나프타溜分까지의 경질유를 제거한溜出油와 상압잔사유의 혼합물이나, 상압잔사유 그 자체를 말한다.

이와같이 B-C유는 증류잔사유를 주성분으로 하고, 경유 감압溜出油 등과 혼합된 석유제품으로 화학적인 정제는 하지 않으므로 석유제품 중 품질면에서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C유를 다시 가공하면 윤활유, 아스팔트, 석유코크스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B-C유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B-C유는 주로 디젤연료 등의 동력원, 보일러연료 등의 熱源으로 쓰이며, 이밖에 가스化, 나프타化, 코크스化 등 2차가공을 거쳐 여러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